

광주은행 사회공헌 '귀감'... 지난해 100억 지출

복지사각지대 지원·소외계층 아동 교육 후원 등

시중은행 4년 연속 감소세에도 전년대비 9억원 늘려

광주은행(행장 김한)의 사회공헌활동비 지출이 2016년, 전년 대비 9억원이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비 지출은 4년 연속 감소했다.

24일 광주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간한 은행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비로 100억원을 지출해 2015년 91억원에서 9억원이 늘었다. 특히 순이익과 비교해 13.

48%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은행 8.65%, 대구은행 7.74%, 경남은행 7.1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김한 은행장 취임 이후 지역 사회공헌을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금전기부 보다는 지역 소외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위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분야의 광주화류 공모전,

지역어린이를 위한 본점 1층에 원더랜드 체험관 운영, 2017년 광주에서 전남까지 확대한 어린이 뮤지컬 무료공연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21개 금융기관의 작년 1년간 사회공헌활동비 지출액(금융지주사 실적 제외)은 4002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사회공헌활동비 지출액은 2012년에 6653억원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 5630억원, 2014년 5146억원, 2015년 4651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들 금융기관 소속으로 작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42만

936명으로 집계돼 2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에는 43만5879명, 2015년에는 43만1613명이었다.

작년에 사회공헌활동비를 가장 많이 쓴 기업은 농협은행으로 923억원이었으며 가장 적게 지출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각각 4억원이었다.

반면에 비해 사회공헌활동비를 가장 적게 쓴 금융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 꼽혔다.

작년도 순이익과 비교한 이들 세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비 비율은 각각 0.78%, 1.13%, 1.72% 수준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연협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51.53 (+1.47) 금리 (국고채 3년) 1.72% (0.00)
- ↑ 코스닥 677.32 (+0.72) ↓ 환율 (USD) 1114.00원 (-4.20)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전남대 경영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흥축협 육포가공공장을 방문해 공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전남본부, 외국 유학생 초청토론회

12개국 20여명 유통센터 견학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최근 장흥에서 전남대 외국인 대학원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과 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흥축협(조합장 문홍기) 육포가공공장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 산지유통센터 견학을 마친 뒤 농협사업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필리핀, 잠비아, 캄보디아 등 세계 12개국 농업 관련 공무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현재 전남대 경영대

학원에서 1년 6개월 일정의 MBA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 지역 농업·농촌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세제내 출신 니암 파테씨는 육포가공공장 위생시설과 소고기의 비선호부위를 건조 판매하는 육포가공공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육포가공기술을 자국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흥목 본부장은 "앞으로도 외국인교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협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 편의 개선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중앙 왼쪽)이 지난 21일 서광주세무서(서장 노대만) 부가세 신고창구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창구 납세자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201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신고 편리성을 크게 개선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 항목을 사전제공하여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또 방문 사업자 내방시기가 분산되도록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여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있어 신고 전 열람을 통해 신고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구조조정·재해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시민 5명중 4명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매각저지 대책위 설문

72% "떡튀 매각될 것"

85% "국내서 인수해야"

대책위, 매각 댄 지역 총파업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 일부와 도급사,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시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 총파업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가(주)에스티아이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한 매각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응답은 84.1%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매각에 찬성'하는 응답은 8.7%, '잘 모르겠다'는 7.2%순으로 저조했다.

금호타이어를 해외 매각하면 기술이 유출되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 이른바 '떡튀매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1%, '잘 모르겠다'는 9.9%로 조사됐다.

'금호타이어를 누가 인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라는 응답이 85.2%로 대다수였으며 '해외기업'이라는 응답은 6.

2%에 불과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 시민과 금호 임·직원 등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경영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공감한다'는 응답이 68.7%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7%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대선 후보시절)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83.4%로 '공감하지 않는다' 1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진실 에스티아이 연구원은 "해외기업이 이득만 취하고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희생을 떠넘기는 이른바 떡튀매각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우려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구성원 중 2800여명 이상이 매각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고, 광주·전남 지역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불공정 입찰과 계약변경에 따른 손실보전 특혜 논란 속에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매각을 강행한다면 지역경제 파탄과 국내공장 축소·폐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연대해 지역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불공정 입찰과 계약변경에 따른 손실보전 특혜 논란 속에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매각을 강행한다면 지역경제 파탄과 국내공장 축소·폐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연대해 지역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폭염·폭우에 농산물값 폭등

오이 소매가 10개당 1만872원...전년대비 90% 올라

폭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농산물 가격이 이번엔 폭우로 인해 폭등하는 추세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오이와 수박까지 오름세를 타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부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다다기 계통의 오이 평균 소매가는 지난 21일 기준 1만872원(상품 10개)이었다. 평년 5726원에 비해 89.9%, 한 달 전보다는 142.8% 급증한 것이다.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품종인 취청 오이의 평균 소매가가 1만2627원으로 평년보다 72.4% 상승했다. 한 달 전보다 120% 상당 올랐다.

여기에 여름철 배농을 수 없는 과일인 수박도 오름세를 들어갔다. 21일 기준 수박 1통당 평균 소매가격은 1만7912원으로 평년(1만1714원)보다 14% 올랐다.



오이·수박 소매가격 변화
7월21일 기준 평균 소매가격

오이 10개 1만 872원 (평년 대비 89.9% 상승)

수박 1통 1만 7912원 (14.0% 상승)

*다다기 계통 오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연협뉴스

주산지역 전복과 총칭 등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시설이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천안지역 오이 재배하우스는 200여동이 침수됐고, 수박 주산지로 꼽히는 진천과 전북 익산도 이달 이후 출하예정이던 수박 재배시설이 70% 가까이 피해를 봤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 성 준 010-3342-6338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방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관공시 옥생시공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로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시공방법

Step 1. 바탕처리
Step 2. 단열방수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확인! www.ipalg.co.kr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덴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